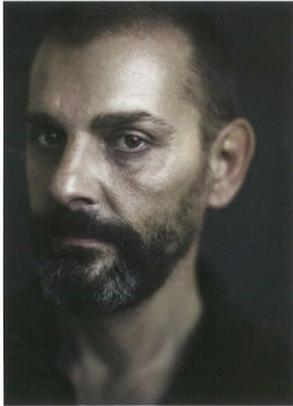


# Earthing: 땅과 맞닿다

June, 2019 | by Editorial

DESIGN & EXHIBITION



## Earthing: 땅과 맞닿다

문의 국제갤러리 (02)735-8449 www.kukjegallery.com

스위스 출신의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우고 론디노네는 지난 20여 년간 시간의 흐름, 자연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일상을 풍부한 시적 감각으로 표현해 왔다. 이번 'Earthing: 땅과 맞닿다'展에서 그는 자연과 다양한 재료의 물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먼저 K3관에서 펼쳐지는 'The Sun'은 이번 전시의 중심축과도 같은 작품으로, 시간과 자연의 상징적인 힘을 다룬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궤적을 그리는 듯한 이 작품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통로를 은유한다. 작가가 형상화한 거대한 원은 태양이 상징하는 생명의 힘을 상기시킨다. K2관에서는 세 개의 독립된 작업인 'Primordial', 'Two Standing Landscapes', 그리고 'Yellow White Green Clock'이 조화로운 풍경으로 펼쳐진다. 전시장에서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거듭하여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작가 특유의 예술 언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Primordial'과 같은 경우, 대형 물고기 떼가 다양한 높낮이로 설치되어 깊은 공간감을 생성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해저심리를 산책하는 듯한 경험을 안겨준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들은 그가 마치 일기를 쓰듯 기록한 우주외도 같다. 그의 작품들은 시간의 순환적인 흐름과 내면의 공간에 대한 은유를 담아냄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심적 풍경으로 향하는 여유로운 여정을 선사한다.

같은 공간, 같은 용, 시계, 물고기, 원

